



전 세계 알루미늄 산업 시장의 전망과 성장기회

“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알루미늄 시장 불확실성과 뉴노멀의 등장과 도입”



출처 : Frost & Sullivan Blog, Thriving in the New Normal ... Industry, Jun 17, 2020

- ❏ 불확실한 시장으로 2020년 알루미늄 과잉이 심각한 상태이며 2020년 제1사분기 전 세계 알루미늄 소비는 8% 감소함
 - 제3사분기와 제4사분기에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에 따라 2020년 연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200만~700만 톤 범위의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전체 알루미늄 소비량의 5~10%에 해당
 - ‘뉴노멀’은 무엇이며 전 세계 알루미늄 주요 업체의 새로운 전략적 로드맵에 줄 영향과 이해관계자는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기를 어떻게 견뎌낼지를 고민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함
- ❏ 전 세계 알루미늄 업계가 선택한 주요 단기 비즈니스 주도권 전략:
 - 2020년 CAPEX(Capital expenditures) 계획 연기: 이는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고 운용 자본을 보존/제어하며 재고가 정리되고 런던금속거래소에서 산출하는 비철금속 지수(LMEX)가 오를 때까지 유동성과 신용 한도를 안전하게 보장함
 - 이러한 단기 조치는 불확실성의 상승 때문에 재고 비용이 오르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

- **공장 임시 폐쇄:** 자동차나 항공우주와 같은 장기 사업과 연관된 재고 부담을 낮춰서 현금 확보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폐쇄 조치는 불가피
- **LME를 헤지(hedge)할 수 있는 적기를 기다림:** 일반적인 가격 전략으로서 주요 기업은 LME 지수의 긍정적인 시장 움직임을 기반으로 LME의 20~30%를 헤지함(hedge)
 - LME은 4월에 톤당 1,421달러라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중국 수요가 회복해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톤당 1,573달러로 증가함

향후 성장 기회는 다음과 같음:

- **원자재를 사내 생산(역방향 통합)하여 원자재 수요를 현지화 함:** 주요 자재의 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
 - 특히 핵심 재료에 의존하는 1차 제련소의 경우에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러한 핵심 자재는 다양한 합금 원소 생산에 사용
- **전 세계 공급망의 변형:** 지수 가격이 불확실하므로 장기 계약이 밀려나고 **현물 가격이 도입될 것**
 - 많은 생산업체는 현재 수요를 기반으로 부가가치 제품(VAP)을 상품 등급 제품으로 전환하는 등, 현재 필요에 맞게 제품 구성을 변경하고 있으므로 다른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전까지 단기적으로 주력해야 할 부문은 전력, 건축 및 건설임
- **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프로젝트에 투자:** 많은 기업이 국내 또는 국외로 또는 국내외 양쪽에서 확장하려는 적극적인 계획을 하고 있음
 -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및 특수 처리의 부가가치를 주도해야 함
- **전기자동차 부문은 여전히 긍정적인 가능성을 품고 있음:** 대다수 자동차 OEM이 천천히 전기 자동차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기에 전기 자동차의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수요가 발생할 것
 - 자동차의 기본을 이루는 차대와 배터리 시스템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기에 회복과 단기 지속가능성에 집중하는 동안 약간의 둔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, EV는 내연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것이므로 이 부문은 전망이 밝은 편임
- **디지털화와 산업:** 첨단 자동화 기술과 제련소 기술을 포함하여 알루미늄 제련소 및 주조 작업에 로봇 공학이 통합되면, 인적 자본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자재 취급 시 안전하지 않은 요소도 제거할 수 있음
- **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재활용 주도권 확대:** 지속가능성은 알루미늄 비즈니스의 핵심이기에 앞으로는 재활용에 대한 투자가 알루미늄 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것
 - 세계적인 주요 기업 다수는 **폐쇄 루프 재활용 방침**(closed-loop recycling)을 도입
 - 이 생태계에는 건축 자재 스크랩의 관련성이 높으며 전기자동차의 알루미늄 함량이 높아지고 있으므로, 이러한 주도권과 모범 사례는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

❏ **(결론)** 알루미늄 제조업계의 새로운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기업은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함

- **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안**
 - 의사결정에 대해 체계적인 위험 관리 비즈니스 사례를 보장하기위해 다수의 생산업체는 사내 위험 관리팀을 보유해 잠재적인 비즈니스 위험성 및 이를 완화할 솔루션을 추적해야 함
 - 적절한 비상 계획을 갖추는 동시에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도권에 지속해서 투자
- **직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자료에 투자**
 - 전반적이고 공격적인 현금 지출 축소해 불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현금 기반을 보유
 - 지출을 줄이고, 생산 레벨에 맞게 고정 및 변동 요소의 비용 감축
 - 공급업체와의 협약은 적절한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 되며 선호하는 공급업체의 파트너십 위치를 확보하고 동반 관계를 이미 체결했다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함
- **사회적 거리두기 시행; 자동화 시스템 도입**
 - 프로세스 및 생산성 개선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 비용을 주도하고 **공급망 최적화**를 통해 대체 공급처와 관계를 맺음
 - 운영자본 및 재고 축소로, 계약 조건을 최적화하고 **정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**해야 함
- **꼭 필요하지 않은 출장은 모두 중단함**
 - 장기 계약/장기구매 계약에 따라 용량 최적화 및 현실적인 생산량 증대가 결정되며 이는 확장 또는 신규 투자에 대한 그린필드 또는 브라운필드 투자의 **지속가능성을 저하할 것**
 - 기존 계획의 수정해 CAPEX를 최적화하고 지속가능성의 중심을 이룰 프로젝트를 우선으로 처리
- **코로나바이러스 및 기타 질병의 퇴치를 위한 기부와 CSR 활동이 주요 사안이 될 것**
 - 재활용에 투자하고, 초기 재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, **폐쇄형 재활용(closed-loop recycling)** 개념을 도입하여 외부 유통업체나 거래처에 의존하지 않고 **자사 채널을 이용한 마케팅(captive marketing) 네트워크에 투자**하고 존재감을 넓혀줌
 -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합금, 템퍼(temper), 두께 등에 대한 **맞춤형 솔루션**을 제공하고 직접 서비스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좌우

- 기술사업화 이슈&마켓 보고서는 해외시장정보 전문업체(Frost & Sullivan, Lexisnexis 등)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공식적 견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- 본 보고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innopolis.or.kr>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-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,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